

32년만에... '넘어 넘어' 증보판 11일 출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 청문회, 전·노 재판 등 초판분량의 1.8배 600매 엮어 황석영 등 집필진 25~31일 광주서 출판기념회...독자와 만남

5·18민중항쟁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물로 출간 당시 '지하 베스트셀러'로 불리며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32년 만에 전면증보판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5·18 관련 군(軍) 기록물, 전두환·노태우 재판, 국회 청문회 기록 등을 토대로 내용이 대폭 보강된 것은 물론, 5·18특별법에 따라 기소·유죄 확정 판결받은 전두환 등 16명을 제외한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대대장급)들의 만행을 실명 비판하는 내용도 증보판에 처음 실렸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광민회)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넘어 넘어)'(사진)'가 오는 11일 전면증보판으로 출간된다고 9일 밝혔다.

창작비평사가 출판하며 집필은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씨가 맡았다. 지난 1985년 풀빛출판사가 펴낸 초판은 320면에 불과했으나, 증보판은 1.8배에 달하는 600매 분량에 달한다고 책을 엮은 광민회 측은 덧붙였다.

집필진은 항쟁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의 시각과 증언 등을 담아 기록한 초판에 최근까지 공개된 ▲5·18 당시 계엄군의 군사작전 내용 ▲5·18 관련 재판(전두환·노태우 재판) 결과 ▲5·18 국회청문회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와 연구결



과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5·18의 역사적·법률적 성격도 규정했다.

'넘어 넘어' 증보판에는 특히 5·18특별법

에 따라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 진압군 핵심세력 16명 외에도, 1980년 5월 투입된 진압군들을 지휘한 중령급 현장 지휘관까지 실명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항쟁의 당사자 외에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내외신 기자들의 증언과 기사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집필진은 설명했다.

책을 엮은 광민회 측은 32년 전 초판이 '폭도들의 무장난동'으로 왜곡된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면 증보판은 2008년 보수정부 집권 후 갈수록 노골화 된 항쟁의 진상과 참여자에 대한 날조, 편향에 대항하려고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민회 관계자는 "넘어 넘어 초판이 전두환 정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폭로함으

로써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증보판은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극우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에 맞서 우리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추천사에서 "내란의 수괴로 확정판결까지 받은 전두환조차 최근의 호화 자서전에서 자신이 '광주사태' 뒷감당의 '제물'이라 운운하는 망언을 서

슴지 않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에서 이 책이 증보판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참으로 통렬한 정의의 천둥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황석영·이재의·전용호 등 집필자들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광주서 동구는 압미서관에서 열리는 '넘어 넘어' 출간 기념전시회에서 지역 독자와 만남을 갖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혜순 시인 '5·18 문학상' 고사

문단 일각 "미당문학상 수상 전력 부담 느낀 듯"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혜순 시인이 수상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2017 5·18 문학상' 본상 수상자 '피어라 돼지'를 집필한 김 시인이 수상을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을 5·18재단에 최근 밝혔다. 김 시인은 "5·18 정신의 무거움을 생각할 때 (수상용) 정중히 사양한다"고 재단에 전했다. 5·18재단은 김 시인의 뜻을 존중해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시인의 이런 결정은 문단 일각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재단 관계자는 "문단 일각에서 미당문학상 수상자(2006년)가 5·18문학상을 수

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 시인이 수상 사양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5·18문학상 신인상에는 시 부문 가작 이은정의 '흑백', 소설 부문 당선작 최지영의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 동화 부문 정미영의 '레벨업'·박수진의 '유통기한 친구'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광주전남작가회의는 '5·18문학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이번 본상 수상자 선정 결과가 낯은 사태에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문학의 정체성은 물론 세계와 역사에 대한 윤리성의 확보에 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4, 해질 19:25, 달돋이 17:51, 달질 04:48

먼지 씻는 '비'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	13/17	순천	비	11/16
목포	비	13/17	영광	비	13/16
여수	비	13/16	진도	비	13/17
나주	비	11/16	전주	비	14/17
완도	비	12/17	군산	비	13/17
구례	비	12/16	남원	비	14/16
강진	비	12/17	홍산도	비	11/16
해남	비	11/17			
장성	비	11/16			



비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동~남동	서~남서	동~남동	서~남서
남해	남해	1.0~2.0	0.5~2.0	1.5~3.0	1.5~2.5
남해	서부	1.0~2.0	1.0~2.0	1.5~3.0	1.5~3.0
남해	서부	2.0~3.0	2.0~3.0	2.0~3.0	2.0~3.0

생활지수

- 주의: 식중독,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 낮음: (None listed)

주간 날씨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	☁	☁	☀	☀	☀	☀
12/19	15/26	16/28	14/26	15/26	15/25	15/25

강풍에 삼척 산불 진화 난항

70% 진화... 헬기 비상착륙하다 정비사 사망

산불 진화에 나선 헬기 정비사의 순직이 이어진 강원 삼척 산불은 8일 오후 4시20분 현재 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척 도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8일 현재 진화 헬기 24대, 인력 500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풍으로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지난 7일 오전 11시께 주

불진화가 완료됐으나 강풍으로 재발한 강원 산불도 이튿날인 8일 오전 5시30분부터 헬기 15대와 인력 230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다시 주불을 잡은 뒤 현재 진화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삼척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 24대는 연료보급을 위해 이동하다가 안개에 시야가 가려 고압선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조병준(47) 정비사가 추락 사망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숨막혀요" 8일 광주지역(광주서 동구 서석동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43㎍/㎥을 기록하는 등 '매우 나쁨' 상태를 보였다. 대전일인 9일에는 비와 함께 미세먼지도 다소 사라져 '보통'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미세먼지 탓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교육청, 돌봄교사 67명 공무직 전환키로

광주시교육청이 고용 승계를 요구해온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시간제) 67명에 대해 경력경쟁 채용 방식을 통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경력 1년6개월 이상(위탁경력 포함)인 돌봄전담사들을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고용(공무직 전환)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

무직본부와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의 공개 채용 방식에 따라 하고 위기에 내몰렸던 돌봄전담사 134명 중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보유한 67명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 전형으로만 채용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7명은 기존 방침대로 필기시험과 2차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교육청은 이날 협상이 타결되

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수정해 발표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애초 내세웠던 공개 채용 원칙을 장 교육감이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줄곧 "교육계에 대한 팽배한 불신과 고용 불안,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원칙이 훼손되면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원칙,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신뢰성 등이 깨질까 염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애초부터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원인 불편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중심사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독점하다!

-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서남부권(완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을 품은 위치! - 해남고, 해남공업고, 해남중,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료, 의료, 미용, 학원, 법조학원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상품! - 두번다시 없을 [新] 프리미엄 기대!

분양 임대 1577-1901 시행 | 1주 금상 시공 | 진보종합건설(주)